

## 아랍에미리트(UAE), 윤석열 정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동참

- 한-아랍에미리트(UAE), ‘무탄소에너지-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교차지지 선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UAE 원자력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이하 ENEC)는 11.24.(금)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와 ENEC과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 이하 ‘WNA’)의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 Zero Nuclear Initiative)를 교차 지지하기로 하였다.

금번 교차 지지 선언은 ①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②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UAE ENEC의 동참으로 글로벌 기후 아젠다로서 CFE 이니셔티브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으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 탄소중립을 조기에 이행하자는 것이다. ENEC의 지지 선언은 CFE 이니셔티브가 국제사회에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원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재확인 되었다. ENEC과 세계원자력협회(WNA)이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하고, 한국이 동참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탄소중립 달성의 현실적 대안으로써 원자력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원자력 용량 확대, 기술개발, 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향후 양국은 전 세계 원전 확대에 관심 있는 국가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금번 교차 지지를 계기로 양국이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양국이 제안한 CFE 이니셔티브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가 국제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원전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5330)
	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허은수 (044-203-5331)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산업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강봉조 (044-203-5122)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240)
		담당자	사무관	강희경 (044-203-4248)

